

간결한 박스 형태의 입체에 담긴 철학...도널드 저드展

장하나 기자

2014-10-30 15:22



untitled. 1992. cor-ten steel and green, yellow, purple, ivory, orange, and black acrylic sheets. 50 x 100 x 50 cm (each).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Judd Foundation.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별다른 장식도 없이 지극히 단순한 박스 형태의 입체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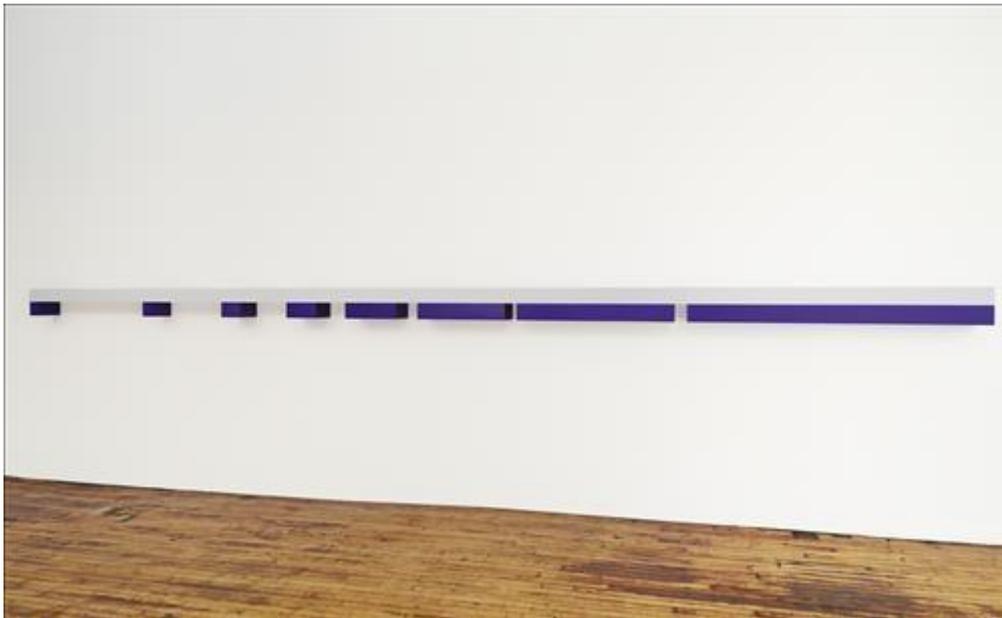
언뜻 보면 잘 꾸민 집이나 카페에서 만날 만한 장식장 같은 느낌이다.

그나마 화이트큐브에 설치했으니 작품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실 다른 공간에서 마주했다면 "그래서 작품은 어디 있는데?"라는 (미술계 사람들이 들으면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질 법한 작품들이다.

본인은 '미니멀리즘 작가'로 불린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미술사적으로는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로 분류되는 미국 작가 도널드 저드(1928~1994)의 작품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꼽히는 도널드 저드 개인전이 30일부터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그의 작품 시기 중 백미라고 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 14점을 소개하는 전시다.



untitled.1970. clear and purple anodized aluminum. 21 x 642.6 x 20.3 cm. Photographer Jeremy Haik.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한 작가는 1940년대 회화로 미술을 시작했지만 1950년대 말 당시 회화의 관행에 반기를 들고 1960년대 초부터 3차원의 오브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전시에 맞춰 방한한 작가의 아들 플래빈 저드 '도널드 저드 재단' 이사장은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아버지는 추상적으로 물질을 표현하기보다 외부 세계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물을 상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오브제를 만들고자 한 저드는 그런

의미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작품 세계가 한정되거나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아들 플라빈 저드는 "아버지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가구, 건물 등 삶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시멀리스트'"라고 강조했다.

저드는 1965년 발표한 에세이에서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명확하고 정제된 오브제를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적 특성과 풍부한 표면 품질을 위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플렉시 글라스, 합판, 콘크리트 등과 같은 산업 재료를 사용했다.

특히 완벽하고 세련된 오브제를 만들고자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 제작자들을 적극 활용했다.



Portrait of Donald Judd, 1991. Image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도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아들 플라빈 저드 이사장의 말대로 언뜻 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작품이지만 전시 공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이번 전시에는 둘로 나뉜 알루미늄 튜브를 엮은 빨간 상자 형태의 1991년 작품과 다양한 색깔로 내부를 채운 코텐스틸(cor-ten steel) 작품(1992년작), 투명한 보라색으로 도금 처리된 알루미늄으

로 만든 길이 6.4m의 작품(1970년작) 등이 소개된다. 모두 다른 외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재료의 간결성을 살린 박스 형태로 이뤄진 작품들이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 02-735-8449.

hanajjang@yna.co.kr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219067>